

장애인 생활환경실태 조사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Physical Living Environment for the Challenged People

이 성 규* 정 은 영**

Lee, Sung Kyu Jung, Eun Young

Abstract

This study was from the survey on the items related to the challenges, the activity frequency of the challenged people and the places where these activities take place and the satisfaction and the demands on the facilities for the challenged people from 1,284 challenged people over the age of 20 living in Korea nation wide.

From the survey, it was shown that the biggest demand lied in the improvement of the facilities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and access for their residence and social activities. They felt they are inconvenient for the perspective of the implementation rate. Additionally, they had high desire for culture and physical educational activities. Improvements to provide convenient environments where the challenged people can access to and use the facilities as conveniently as unchallenged people do by minimizing the physical hindrances are urgently needed.

For time being, many facilities for the challenged people was supplied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s for challenged people, however, foreign regulations had to be adopted for these job due to insufficient date on physical conditions of the challenged people in Korea. Moreover, current facilities for the challenged people emphasized more on physical aspect and the facility itself without the considerations on the overall environments, as result the improvement satisfaction and efficiency were low. More flexible and humane design approaches are needed instead of relying on supply rate and try to 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llenged people without any discrimination.

키워드 : 장애인, 생활환경, 장애인편의시설, 만족도

Challenged People, Physical Living Environment, Facilities for the Challenged People,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에게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장애뿐만 아니라 물리적 생활환경과 편견이나 불평등한 제도 같은 비물리적 사회장애 등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개인적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리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 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들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무어 외(Moore et al., 1985)는 그들의 환경적 제약 및 장애를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것은 신체적 한계(impairment) 혹은 기능적인 장애(disability)에 의한 것과 함께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생활환경의 물리적 제약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사회활동

에 따른 생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 및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 및 계획방향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분류는 지체장애인과 같은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총 15개 유형으로)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편의시설의 공급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정신지체 장애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상생활에 있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의 크기는 조사의 성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 1200명으로 예상 표집하였고,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 유형별 장애인 분포 비율에 기초하여 계획하였다.

1) 2003년 7월 장애범주가 기존의 10개 유형(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에서 15개 유형(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5종 추가)으로 확대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정책학박사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06년도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부문 연구용역 중 「장애인 생활용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용역에 의한 것임.

조사결과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인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애 유형별 장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등의 회원, 이용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그들이 직접 기록하도록 하여 조사원이 그 자리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시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직접 응답지에 기입하는 방식에 어려움이 있어 응답자의 답변을 조사원이 직접 응답지에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국에서 수거된 설문자료는 우편으로 회수한 후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표 1> 설문지의 내용구성

분 류	조 사 내 용
조사대상자 현황	①개인적 배경 ②장애특성
생 활 경	외출형태 ①외출 빈도 ②외출수단 ③개인 외출수단 개조 현황 ④외출 및 이동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 ①주택유형 ②주택개조현황 ③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회생활 ①활동 종류별 활동 유무 및 빈도 ②주 활동 장소 ③활동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만족도 ④사회활동 분야별 물리적 제약 정도
편의시설	①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②종류별 편의시설의 이용현황 ③종류별 편의시설의 평가 및 개선요구

<표 2> 장애유형별 재가장애인 분포 및 설문조사의 예상 표본 수

장애 유형	2005년 추정 장애인		100%환산 비율	예상 표본수
	수(명)	비율(%)		
지체장애	996,674	47.4	67.1	800(808)
뇌병변장애	266,070	12.7	18.1	240(235)
시각장애	219,551	10.4	14.8	160(165)
기 타	618,762	29.5	-	-
계	2,101,057	100.0	100.0	1,200(1,284)

* ()안의 수가 설문조사의 결과 표본수임
 예상 표본수의 결과표본수 1,284는 중복장애인 76명 포함
 2005년 추정 장애인 :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1 용어의 정의

인간의 생활은 연구 및 조사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생활환경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적 자극이나 영향을 충족하는 개념(유영주, 1997)으로, 장애인을 둘러싼 생활환경은 주거·지역환경과 같은 생태학적 환경과 가족·이웃·지역공동체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된다(김익기 외, 1999).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이 일어나는 환경적 맥락(context)으로서의 외출 및 주거환경, 사회활동에 따른 접근과 이동에 대한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2. 장애인 현황과 특성

2.1 장애인 인구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장애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장애인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148,686명으

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출현율4.59%로서 2000년의 3.09%에 비해서는 1.50% 증가 하였다.

현재 15개 법정장애유형 중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서 999.7천명(47.4%)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뇌병변장애 266.0천명, 청각장애 227.8천명, 시각장애인 219.6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이 전체 재가장애인의 59.9%(1,258.2천명), 여성장애인은 40.1%(842.8천명)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이것과 비교할 때 4.59%로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장애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까지도 장애의 유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 등으로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며, 장애 등록에 따른 사회적 혜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장애등록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1.2 장애인 행동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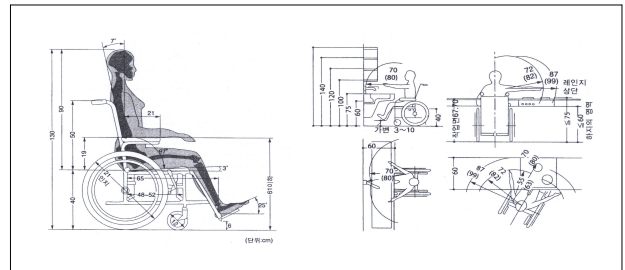
(1) 휠체어 사용자의 행동 특성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품으로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수 및 의족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행동반경이 가장 크고 이동시에 제약이 가장 많은 것이 휠체어이다.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은 비장애인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앉은 자세가 되어 상반신의 위치가 낮아지고, 팔의 전면운동범위가 좁아진다. 물리적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행동특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행동 특성	특성 설명
- 전후로의 이동 및 회전이 매우 빠르고 동작하는데 많은 공간이 소요되며, 횡방향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 공간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빠르게 360° 회전 할 수 있고, 약간의 힘으로 원활하게 전후로 이동할 수 있다.	
- 수직이동이 곤란하다. 평지에서의 이동은 용이하지만 단차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곳은 오르지 못한다.	
- 손이 미치는 범위가 좁다. 앉아 있는 상태로 높이가 130cm정도이며, 높은 곳이나 낮은 곳, 전후·좌우 방향으로 손이 닿는 범위가 한정되어 시설물의 높이가 적당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 휠체어의 작은 바퀴의 폭이 2cm정도로 요철이 있는 노면이나 이음새가 큰 곳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 옮겨 앉을 때의 동작 공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휠체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앉을 때는 적절한 높이와 공간이 필요하다.	
- 비 오는 날 우산 사용이 불가능하며, 노면이 젖어있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지기 쉽다.	

출처 : 조성모 외 3인,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학문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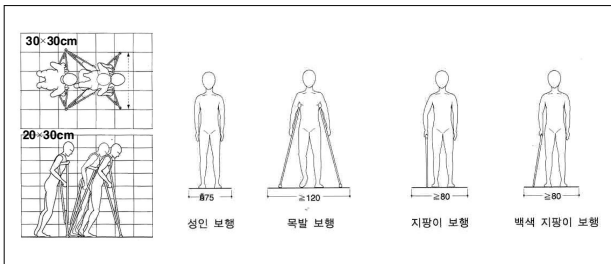
출처 : 건축설계자료집성, 일본건축학회, 2005

<그림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동작 치수

(2) 보행장애인의 행동특성

보행장애인이란 이동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노인도 이 분류에 속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품으로는 일반적으로 스틱과 목발이 사용되며, 목발 또한 개인적 보행능력에 따라 팔꿈치 목발, 3각 목발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몸을 굽히는 동작이 어려워 낮은 곳에 손이 닿아야 하는 동작은 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목발을 사용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면과 목발이 약 15°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여 보행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쪽만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과 양쪽 모두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 등을 위한 통과 유효폭과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의 선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 건축설계자료집성, 일본건축학회, 2005

<그림 2> 보행장애인의 동작 공간

(3)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시각장애인은 크게 전맹(Blind)과 저시력(Low Vi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전맹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촉각, 청각, 근육감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여 사물을 인지한다. 시각장애인의 공간인지 방법으로는 기억, 인지지도, 공간정보 업데이트가 있으며, 공간 활용 방법으로는 환경의 규칙성을 이용하고 숫자체계를 사용한다.

<표 4> 시각장애인의 행동특성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단차에도 크게 반응한다. - 무릎 이하, 허리 이상의 시설물은 위험한 장애물이다. - 계단이나 단차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도중에 단 높이나 디딤편의 치수가 변하면 혼란이 온다. - 흰지팡이로는 바닥의 상황만 파악할 수 있으며, 천장 등의 돌출물은 발견하기 어렵다. - 보행할 때는 보행폭, 보행거리, 발바닥의 감촉 등에 의존하므로 직선보행의 연속이 바람직하다. - 일상적인 의사소통으로 소리에 의존한다. - 기후가 나쁘면 주위에서의 반사음 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없어 혼자서 보행할 수 없게 된다.
--------------	---

3. 장애인의 생활환경 실태 및 분석

3.1. 조사대상자 현황

설문조사 대상자는 지체장애인 808명, 뇌병변장애인 235명, 시각장애인 165명, 기타 76명 등 총 1,284명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자가 63.2%, 여자가 36.8%로 남자가 더 높게 표집 되었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는 20-30세 미만(10.6%), 30-40세 미만(18.9%), 40-50세 미만(25.6%), 50-60세 미만(22.8%),

60세 이상(22.1%)로,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갖고 생활한 기간은 21년 이상의 장기간이 48.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전체 표본수의 8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 분	지체장애 (N=808)		뇌병변장애 (N=235)		시각장애 (N=165)		계 (N=1,284)	
		f	%	f	%	f	%	f	%
성별	남	523	65.5	134	58.0	99	60.4	799	63.2
	여	276	34.5	97	42.0	65	39.6	465	36.8
	계	799	100.0	231	100.0	164	100.0	1,264	100.0
연령	20-30세 미만	65	8.2	36	15.5	23	13.9	133	10.6
	30-40세 미만	133	16.9	53	22.8	33	20.0	237	18.9
	40-50세 미만	241	30.5	38	16.3	28	17.0	322	25.6
	50-60세 미만	194	24.6	45	19.3	38	23.0	278	22.8
	60세 이상	156	19.8	61	26.1	43	26.1	247	22.1
	계	789	100.0	233	100.0	165	100.0	1,257	100.0

* '계'는 중복장애인을 포함한 수치임

<표 6> 조사 응답자의 장애현황

특성	구 분	지체장애 (N=808)		뇌병변장애 (N=235)		시각장애 (N=165)		계 (N=1,284)	
		f	%	f	%	f	%	f	%
장애 기간	10년 이하	215	28.4	93	43.5	32	20.8	356	29.8
	11-20년	170	22.5	43	20.1	27	17.5	256	21.5
	21년 이상	372	49.1	78	36.4	95	61.7	491	48.7
	소 계	757	100.0	214	100.0	154	100.0	1,193	100.0
장애 급수	1급	206	27.6	59	27.9	101	61.6	383	32.3
	2급	208	27.9	93	44.1	25	15.2	346	29.2
	3급	187	25.1	40	18.9	9	5.5	253	21.4
	4급	62	8.3	11	5.2	1	0.6	76	6.4
	5급	56	7.5	5	2.4	5	3.1	67	5.7
	6급	27	3.6	3	1.4	23	14.0	59	5.0
	소 계	746	100.0	211	100.0	164	100.0	1,184	100.0

* '계'는 중복장애인을 포함한 수치임

3.2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1) 주거형태 및 개조현황

조사응답자의 거주상태는 <표 7>에 정리된 내용과 같다. 현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56.1%, 뇌병변장애인 60.3%가 자가(自家)에 거주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46.1%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이 시각장애인보다 거주상태 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응답자의 과반수이상(55.5%)이 자기소유의 주거형태인 것에 비해 개조 시행 비율은 21.7%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개조시행 비율이 9.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상 공간인지 방법으로 기억 및 환경의 규칙성을 이용함에 따라 개인의 활동공간인 주거환경에 대한 개조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개조를 시행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비용문제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개조의 필요성이 없어서(25.5%), 내 소유의 집이 아니어서(21.4%), 보호자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해서(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주택 개조를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다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족 등의 도움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한 상태로 현재의 주거 환경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표 8>.

<표 7> 조사 응답자의 거주상태

특성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계	
		f	%	f	%	f	%	f	%
주거 형태	자 가	449	56.1	141	60.3	76	46.1	666	55.5
	전세 또는 월세	261	32.6	66	28.2	63	38.2	390	32.5
	친척 또는 친구집	17	2.1	5	2.1	6	3.6	28	2.3
	기 숙 사	13	1.6	2	0.9	8	4.8	23	1.9
	장애인시설	8	1.0	4	1.7	1	0.6	13	1.1
	그룹 홈	3	0.4	3	1.3	-	-	6	0.5
	기 타	49	6.1	13	5.6	11	6.7	73	6.1
소 계	800	100.0	234	100.0	165	100.0	1,199	100.0	
개조 및 수리	유 무	199	24.6	48	20.4	16	9.7	263	21.7
		609	75.4	187	79.6	149	90.3	945	78.3
	소 계	808	100.0	235	100.0	165	100.0	1,208	100.0

<표 8> 주택 개조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개조 또는 수리비용이 비싸서	35.6	27.9	29.4	34.0
개조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서	26.6	22.1	27.2	25.5
내 소유의 집이 아니어서	20.3	23.8	22.1	21.4
보호자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해서	7.9	15.7	11.0	10.1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879,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522), 뇌병변(N=172), 시각(N=136)

개조를 시행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개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화장실 및 욕실에 대한 개조 시행 비율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 내 접근과 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문턱제거(37.4%), 경사로 설치(33.5%)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싱크대 개조(21.9%), 바닥미끄럼 방지설치(17.6%), 출입구 확장(15.7%), 핸드레일 설치(14.3%), 스위치 높낮이 조정(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주거환경의 개조시행 부분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대문 또는 현관의 경사로 설치	32.3	38.3	37.5	33.5
통로 및 출입구 확장	17.2	12.8	18.8	15.8
문턱제거	39.4	31.9	37.5	37.4
스위치 및 수도꼭지 등의 높낮이 조정	14.1	8.5	6.3	12.9
바닥미끄럼 방지 설치	15.2	23.4	31.3	17.6
핸드레일(손잡이) 설치	13.6	19.1	-	14.4
싱크대 개조	26.3	14.9	6.3	21.9
출입문 손잡이 교체 설치	7.1	21.3	-	9.4
침대 개조	10.1	8.5	-	9.0
옷장 및 서랍장 개조	4.5	4.3	-	4.3
화장실 개조(변기, 세면기, 욕조 등)	49.0	44.7	18.8	46.8
비상벨 설치	3.0	6.4	18.8	4.3
긴급대피시설(경보등 등) 설치	0.5	-	6.3	0.7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278,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198), 뇌병변(N=47), 시각(N=16)

스위치 및 수도꼭지 등의 높낮이 조정과 '싱크대 개조'의 비율은 지체장애인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출입문 손잡이 교체 설치'는 뇌병변장애인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바닥미끄럼방지 설치'와 '비상벨 설치' 비율은 시각장애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응답자에게 장애상태와 관련하여 현 주거환경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는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0.4%가 보통이라고 중립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매우만족' 5점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까지의 5점 척도로 계산된 평균만족도는 3.0점으로 중간 값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0> 주거 환경 만족도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계	
	f	%	f	%	f	%	f	%
전혀 만족하지 않음	46	5.8	17	7.4	7	4.3	70	5.9
만족하지 않음	136	17.1	45	19.5	26	16.0	207	17.4
보 통	412	51.8	107	46.3	81	49.7	600	50.4
만 족 함	187	23.5	57	24.7	44	27.0	288	24.2
매우 만족함	14	1.8	5	2.2	5	3.1	24	2.1
소 계	795	100.0	231	100.0	163	100.0	1,189	100.0
평균 만족도	3.0		3.0		3.1		3.0	

* 만족도는 '매우만족' 5점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까지의 5점 척도로 계산된 평균값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 및 주택 개조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한 결과 화장실, 문턱, 문폭, 경사로 등 편의시설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중 개별항목으로 화장실 및 욕실에 대한 불편 문제를 가장 많이 제시한 것으로 보아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있어 제일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화장실 및 욕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불편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주택 내 접근과 이동에 관련된 사항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개조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

구분	화장실 욕실세면대	문턱	계단	주 방 싱크대	휠체어 이용	문 폭	경사로
응답률(%)	25.9	11.9	11.5	7.8	4.5	4.1	3.7

3.3 사회활동과 이용시설

장애인의 활동범위를 사교·사회활동, 문화·체육활동, 여가활동, 일상생활, 직업·교육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정도는 <표 12>에 정리한 내용과 같다.

<표 12> 장애유형 및 활동 분류에 따른 활동 정도

구분	사교/사회		문화/체육		여가		일상생활		직업/교육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활동 (비활동)	
지 체	64.4 (35.6)	43.7 (56.3)	48.1 (51.9)	56.9 (43.1)	39.2 (60.8)					
뇌 병 변	52.3 (47.7)	34.0 (66.0)	39.1 (60.9)	45.5 (54.5)	27.2 (72.8)					
시 각	57.0 (43.0)	34.5 (65.5)	46.7 (53.3)	52.7 (47.3)	43.6 (56.4)					
전 체	60.9 (39.1)	40.7 (59.3)	46.3 (53.7)	54.2 (45.8)	37.7 (62.3)					

* 사례수 : 전체(N=1,284,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808), 뇌병변(N=235), 시각(N=166)

전체적으로 사교·사회활동 비율(60.9%)이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54.2%), 여가활동(46.3%), 문화·체육활동(40.7%), 직업·교육활동(3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직업·교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비율이 72.8%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장애인이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업·교육활동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응답자의 연령비율이 50대이상의 노장년층 분포가 많고 여성의 경우 주부와 같은 미취업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사고 및 사회활동

친구만나기, 시민 또는 친목단체 참여와 같은 사회적 교류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의 활동비율이(64.4%)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57.0%), 뇌병변장애인(4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달 평균 활동 일수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장애인 전체 평균이 한달에 8.2일인데 반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9.9일, 시각장애인 9.1일, 지체장애인 7.6일로 뇌병변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다소 활발한 사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사고·사회활동의 주된 활동장소는 복지관(34.4%)과 단체 사무실(29.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또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같은 장애인들끼리의 모임을 통한 활동이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4>.

<표 13> 장애유형별 사고 및 사회 활동 빈도

특성	구 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계	
		f	%	f	%	f	%	f	%
활동 빈도	한달에 몇 번	204	39.3	48	39.0	30	31.9	303	38.7
	한주에 1-2번	149	28.6	22	17.9	26	27.7	210	26.9
	한주에 3-4번	86	16.5	20	16.3	18	19.1	127	16.2
	한달에 보름이상	46	8.8	19	15.4	14	14.9	84	10.7
	거의 매일	35	6.7	14	11.4	6	6.4	58	7.4
	소 계	520	100.0	123	100.0	94	100.0	782	100.0
평균 활동일(회)		7.6		9.9		9.1		8.2	
활동정도(%)		64.4		52.3		57.0		60.9	

* 사례수 : 전체(N=782,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520), 뇌병변(N=123), 시각(N=94)

<표 14> 장애유형별 사고 및 사회 활동 장소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활동 장소	복지관	32.4	39.3	41.5	34.4
	단체사무실	32.4	23.0	24.5	29.3
	커피숍 등 대중장소	24.7	20.5	24.5	24.4
	친구집/직장	17.5	18.9	10.6	17.0
	본인 직장	8.2	5.7	5.3	7.1
	단체 회원집	4.7	10.7	10.6	6.9
	기 타	4.7	2.5	2.1	3.9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771,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510), 뇌병변(N=122), 시각(N=94)

(2) 문화 및 체육활동

문화 및 체육활동은 전반적으로 활동정도가 낮은 편으로 지체장애인(43.7%)보다 뇌병변장애인(34.0%)과 시각장애인(34.5%)의 활동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균 활동일수가 한달에 7.0일로 전체 평균 5.7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5>.

문화 및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극장·공연장 이용이(32.2%)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관(30.6%), 공공문화시설(15.5%), 스포츠센터(13.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주로 극장(30.2%)과 공연장(44.2%)의 이용률이 많은 반면, 시각장애인은 복지관(38.6%)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문화,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더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춘 복지관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표 16>.

<표 15> 장애유형별 문화 및 체육활동 빈도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f	%	f	%	f	%	f	%
활동 빈도	한달에 몇 번	210	59.5	49	61.3	28	49.2	307	58.8
	한주에 1-2번	73	20.6	12	15.1	11	19.3	101	19.3
	한주에 3-4번	70	19.8	19	23.8	18	31.6	114	21.8
	소 계	353	100.0	80	100.0	57	100.0	522	100.0
	평균 활동일(회)	5.5		5.6		7.0		5.7	
활동정도(%)		43.7		34.0		34.5		40.7	

* 사례수 : 전체(N=522,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353), 뇌병변(N=80), 시각(N=57)

<표 16> 장애유형별 문화 및 체육활동 장소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활동 장소	극장, 공연장	30.2	44.2	26.3	32.2
	복지관	27.8	37.7	38.6	30.6
	공공 문화시설	16.9	16.9	8.8	15.5
	스포츠센터	14.5	10.4	14.0	13.5
	운동경기장	13.6	6.5	8.8	11.9
	문화센터	14.8	3.9	5.3	11.3
	학 교	4.1	3.9	1.8	4.2
	기 타	4.1	6.5	17.5	6.2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503,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338), 뇌병변(N=77), 시각(N=57)

(3)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활동빈도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는 <표 17,18>과 같다.

<표 17> 장애유형별 여가활동 빈도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f	%	f	%	f	%	f	%
활동 빈도	한달에 몇 번	232	59.6	48	52.1	39	50.7	343	57.6
	한주에 1-2번	94	24.2	21	22.8	18	23.4	142	23.9
	한달에 3-4번	63	16.2	23	25.0	20	26.0	111	18.7
	소 계	389	100.0	92	100.0	77	100.0	595	100.0
	평균 활동일(회)	4.9		6.9		6.6		5.4	
활동정도(%)		48.1		39.1		46.7		46.3	

* 사례수 : 전체(N=505,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389), 뇌병변(N=92), 시각(N=77)

<표 18> 장애유형별 여가활동 장소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활동 장소	공 원	46.6	47.3	41.3	46.6
	산이나 강	43.4	31.9	44.0	40.5
	놀이시설	10.5	9.9	5.3	9.9
	고 궁	2.2	5.5	-	2.4
	기 타	11.9	14.3	20.0	13.6

* 활동장소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573,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371), 뇌병변(N=91), 시각(N=75)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한달에 평균 5.4일 정도로, 주로 공원(46.6%)이나 산·강(40.5%)과 같은 야외 장소의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6.9일), 시각장애인(6.6일) 보다 지체장애인의 활동(4.9일)이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지체장애인에게 더 많은 제약이 있어 활동 참여가 낮은 것으

로 추측된다.

(4) 일상생활

쇼핑이나 관공서이용, 은행이용 등의 매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평균 한달에 5.0일 정도활동하고 있었으며,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임에도 다른 활동과 비교하여 활동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쇼핑이나 은행 이용 등은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곳으로는 대형할인마트(55.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슈퍼마켓(30.5%), 구청·동사무소(29.5%), 은행(25.5%)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할인마트는 주로 쇼핑카트를 이용하여 쇼핑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기본적으로 모든 층에 단차가 제거되어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도 무리 없을 정도의 넓은 공간과 승강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재래식 시장보다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향은 지체장애인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표 20>.

<표 19>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활동 빈도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f	%	f	%	f	%	f	%
활동 빈도	한달에 몇 번	229	49.7	52	48.6	53	60.9	362	52.0
	한주에 1-2번	154	33.5	33	30.8	21	24.1	219	31.5
	한주에 3-4번	77	16.7	22	20.6	13	14.9	115	16.5
	소 계	460	100.0	107	100.0	87	100.0	696	100.0
	평균 활동일(회)	5.1		5.6		4.3		5.0	
	활동정도(%)	56.9		45.5		52.7		54.2	

* 사례수 : 전체(N=666,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460), 뇌병변(N=107), 시각(N=87)

<표 20> 장애유형별 일상생활활동 장소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활동 장소	대형할인마트	59.1	49.5	46.0	55.2
	슈퍼마켓	28.6	34.3	28.7	30.5
	구청/동사무소	29.8	22.9	34.5	29.5
	은행	25.3	26.7	24.1	25.5
	시장	20.4	20.0	24.1	20.5
	백화점	7.2	7.6	6.9	7.2
	세탁소	1.3	1.0	1.1	1.5
	기 타	2.7	3.8	3.4	2.8

* 활동장소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679,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447), 뇌병변(N=105), 시각(N=87)

(5) 직업 및 교육활동

직업 또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비율은 37.7%로 다른 활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에 참여하는 조사 응답자의 평균 활동일수는 13.8일로 다른 활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조사응답자의 사회활동은 주로 직업 또는 교육과 관련된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69.4%(지체 47.3%, 뇌병변 46.9%) 한달에 보름이상 활동하고 있어 활동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직업 및 교육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직장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36.7%로 낮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 활동장소가 복지관(42.9%)인 경우가 직장(32.9%)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주로 취업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표 22>.

<표 21> 장애유형별 직업 및 교육활동 빈도

특성	구 분	지체장		뇌병변		시각		계	
		f	%	f	%	f	%	f	%
활동 빈도	한달에 몇 번	74	23.4	10	15.6	11	15.3	104	21.4
	한주에 1-2번	75	23.6	10	15.6	6	8.4	97	20.0
	한주에 3-4번	18	5.7	14	21.9	5	6.9	40	8.3
	한달에 보름이상	83	26.2	9	14.1	33	45.8	133	27.5
	거의 매일	67	21.1	21	32.8	17	23.6	111	22.9
	소 계	317	100.0	64	100.0	72	100.0	484	100.0
평균 활동일(회)		13.0		15.3		16.6		13.8	
활동정도(%)		39.2		27.2		43.6		37.7	

* 사례수 : 전체(N=484,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317), 뇌병변(N=64), 시각(N=72)

<표 22> 장애유형별 직업 및 교육활동 장소

특성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계(%)
활동 장소	직 장	36.8	39.1	32.9	36.7
	복 지 관	34.5	34.4	42.9	35.2
	학 교	11.7	12.5	17.1	13.8
	종교시설	16.6	10.9	2.9	13.6
	스포츠센터	5.2	3.1	1.4	4.2
	사설학원	2.3	3.1	-	1.9
	야 학	0.7	4.7	1.4	1.3
	기 타	7.2	6.3	10.0	7.2

* 활동장소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471,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307), 뇌병변(N=64), 시각(N=70)

4. 사회활동과 편의시설

4.1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활동제한

사회활동별 편의시설 설치정도 및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정도는 <표 23>에 정리된 내용과 같다. 평균점수는 ‘매우 잘 갖춤(전혀 안불편)’ 4점부터 ‘거의 안 갖춤(매우 불편)’ 1점까지 4점척도로써 평균점수가 2.5점보다 높으면 편의시설을 갖춘 정도와 활동의 제약 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조사 응답자의 56.7%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중간 값인 2.5점보다 0.1점 높은 2.6점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편의시설 설치상태를 중간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61.0%의 응답자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평균점수도 2.3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가장 제약을 느끼고 있는 활동은 여가활동(7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시설별로 편의시설 설치정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정도를 살펴보면<표 24>와 같다.

<표 23> 사회활동별 편의시설 평가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활동제약 정도

구 분	편의시설 평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활동제약 정도								
	① 매우 잘갖춤	② 비교적 잘갖춤	긍정 ①+②	③ 별로 안갖춤	④ 거의 안갖춤	부정 ③+④	계	평균 점수	① 전혀 안불편	② 별로 안불편	긍정 ①+②	③ 약간 불편	④ 매우 불편	부정 ③+④	계	평균 점수
사교·사회활동	11.8	44.8	56.6	33.4	10.0	43.4	100.0	2.6	7.3	28.6	35.9	46.9	17.2	64.1	100.0	2.3
문화·체육활동	8.6	55.9	64.5	29.9	5.6	35.5	100.0	2.7	7.0	31.6	38.6	49.0	12.5	61.5	100.0	2.3
여가활동	4.8	30.6	35.3	50.5	14.1	64.7	100.0	2.3	3.5	23.5	27.0	52.3	20.7	73.0	100.0	2.1
일상생활	8.1	49.7	57.8	35.2	7.0	42.2	100.0	2.6	4.8	30.0	34.7	51.4	13.9	55.3	100.0	2.3
직업·교육활동	17.0	56.2	73.1	22.0	4.8	26.9	100.0	2.9	12.8	37.7	50.5	36.9	12.6	49.6	100.0	2.5
전 체	9.9	46.8	56.7	34.7	8.6	43.3	100.0	2.6	6.9	30.0	36.8	47.7	15.6	61.0	100.0	2.3

* 평균점수는 '매우 잘갖춤(전혀 안불편)' 4점부터 '거의 안갖춤(매우 불편)' 1점까지의 4점 척도로 계산된 평균값임

<표 24> 이용시설별 편의시설 평가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정도

구 분	편의시설 평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정도					
	매우 잘갖춤	비교적 잘갖춤	별로 잘갖춤	거의 안갖춤	계	평균 점수	전혀 안불편	별로 안불편	약간 불편	매우 불편	계	평균 점수
커피숍 등 대중장소	3.2	29.9	47.6	19.3	100.0	2.2	4.4	23.3	51.6	20.8	100.0	2.1
복 지 관	18.4	58.6	21.5	1.5	100.0	2.9	10.3	37.4	41.1	11.2	100.0	2.5
단체사무실	10.5	55.9	29.1	4.5	100.0	2.7	3.6	26.5	50.5	19.4	100.0	2.1
공공문화시설	1.3	64.1	30.8	3.8	100.0	2.6	5.8	26.1	56.5	11.6	100.0	2.3
문화센터	7.1	57.1	35.7	-	100.0	2.7	-	26.5	55.1	18.4	100.0	2.1
극장/공연장	5.7	50.9	36.5	6.9	100.0	2.6	6.4	30.5	47.5	15.6	100.0	2.3
운동경기장	8.3	40.0	41.7	10.0	100.0	2.5	3.8	23.1	55.8	17.3	100.0	2.1
스포츠센터	15.2	63.6	18.2	3.0	100.0	2.9	6.9	41.4	44.8	6.9	100.0	2.5
놀이시설	-	29.6	64.8	5.6	100.0	2.2	3.9	25.5	45.1	25.5	100.0	2.1
공원	7.0	33.7	54.3	5.0	100.0	2.4	3.3	20.6	58.9	17.2	100.0	2.1
슈퍼마켓	4.1	35.5	49.2	11.2	100.0	2.3	1.9	17.8	59.9	20.4	100.0	2.0
대형할인마트	10.1	59.9	26.3	3.6	100.0	2.8	4.2	34.9	51.1	9.8	100.0	2.3
시 장	4.0	36.5	48.4	11.1	100.0	2.3	2.8	21.5	57.9	17.8	100.0	2.1
구청/동사무소	6.8	52.6	37.0	3.6	100.0	2.6	3.6	25.7	56.9	13.8	100.0	2.2
은행	6.7	47.9	40.5	4.9	100.0	2.6	3.3	27.0	56.6	13.2	100.0	2.2
백화점	10.6	53.2	29.8	6.4	100.0	2.7	7.9	26.3	44.7	21.1	100.0	2.2
학 교	16.1	62.9	17.7	3.2	100.0	2.9	12.3	45.6	31.6	10.5	100.0	2.6
직 장	16.8	53.3	23.4	6.6	100.0	2.8	9.9	34.0	41.8	14.2	100.0	2.4
종교시설	11.7	53.3	28.3	6.7	100.0	2.7	16.7	25.9	27.8	29.6	100.0	2.3

* 평균점수는 '매우 잘갖춤(전혀 안불편)' 4점부터 '거의 안갖춤(매우 불편)' 1점까지의 4점 척도로 계산된 평균값임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수준은 중간정도, 불편도는 평균점수 이하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설별로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연계성 등이 부족하여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장애인복지관(2.9점)의 경우 장애인 전용시설로써 비교적 편의시설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 전용시설인 복지관에 대해서도 23.0%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52.3%의 응답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적 및 건축 설립연도에 상관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구청 및 동사무소(정비대상시설로서 법 시행이후 2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여야함)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평균점수가 2.6점으로 겨우 중간 값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응답자의 40.6%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조사응답자에게 하고 싶은 활동 중에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으로 제한되는 활동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체육활동과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23>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에게 있어 문화·체육활동이 가장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활동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요구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

<표 25> 물리적 제약으로 제한되는 활동

구 분	사교 사회	문화 체육	여가	일상 생활	직업 관련	교육 관련
응답률(%)	33.6	51.1	48.9	32.5	32.5	20.2

* 중복 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N=1,226)

4.2 세부 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요구

각종 시설물 및 사회생활 환경 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은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공급이 절대부족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73.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시각장애인의 부정적인 의견이 76.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이 29.0%로 공급에만 치우쳐 설치되어 온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양적인 설치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해석된다.

<표 26> 장애유형별 전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구분	① 공급 대부족	② 실효성 없음	③ 장애인 행동 특성 고려 없음	부정 ① + ② + ③	④ 일부 공급 일부 부족	⑤ 공급 많음	⑥ 현재 매우 만족	긍정 ⑤ + ⑥
지체장애	24.3	19.4	28.8	72.5	30.5	3.5	3.1	6.6
뇌병변장애	25.7	22.2	27.8	75.7	28.3	2.2	1.7	3.9
시각장애	26.9	19.4	30.6	76.9	27.5	3.1	3.1	6.2
전체	24.6	20.2	29.0	73.8	29.6	3.2	2.9	6.1

* 중복 응답 처리 결과임
 사례수 : 전체(N=1,226, 중복장애인 포함), 지체(N=768), 뇌병변(N=230), 시각(N=160)

4.2.1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도 다르다. 본 조사에서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구분하여 세부 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이용 경험과 이용했을 때의 편리한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27> 세부 편의시설 이용률 및 편의성 평가(지체 및 뇌병변)

단위 : %

편의시설 종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전체	
	이용률 (필요성)	편의도 점수	이용률 (필요성)	편의도 점수	이용률 (필요성)	편의도 점수
건물의 진입 경사로	84.8(85.6)	2.6	83.2(82.3)	2.6	84.3(84.7)	2.6
출입문	71.3(72.8)	2.7	70.3(66.5)	2.6	70.9(71.3)	2.7
계단	52.9(53.4)	2.2	58.4(54.0)	2.2	53.7(53.6)	2.2
장애인용엘리베이터	78.0(84.5)	3.1	70.8(82.3)	3.1	76.0(83.4)	3.1
휠체어 리프트	26.6(54.4)	2.4	28.1(49.3)	2.2	27.1(53.1)	2.4
장애인용 대변기	54.6(65.8)	2.8	49.2(62.8)	2.9	53.4(65.0)	2.9
장애인용 소변기	33.3(54.5)	2.8	30.8(48.4)	2.7	33.2(52.8)	2.8
장애인용 세면대	41.4(62.1)	2.8	40.0(60.5)	2.7	41.4(61.6)	2.8
높이낮춘 공중전화 우체통	24.5(53.4)	2.7	17.3(48.8)	2.6	22.7(51.7)	2.7
높이낮춘 매표소 접수대	25.1(55.6)	2.8	21.6(50.2)	2.7	24.0(54.1)	2.8
장애인용 개찰구	27.2(59.5)	2.7	26.5(54.9)	2.6	26.6(57.9)	2.7
장애인용 주차장	63.3(79.9)	3.0	37.8(66.0)	3.0	57.0(76.2)	3.0
대중교통 장애인지정석	38.8(70.2)	2.7	38.9(73.5)	2.5	38.9(70.5)	2.6
장애인용 관람석	25.9(62.2)	2.4	23.2(60.5)	2.5	25.3(61.6)	2.4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시	41.4(69.9)	2.7	34.1(66.5)	2.6	39.2(68.8)	2.7
자동판매기	35.2(56.5)	2.6	26.5(57.2)	2.5	32.8(55.9)	2.5
ATM(현금자동입출기)	41.3(63.1)	2.6	28.6(60.0)	2.7	38.0(61.9)	2.6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편의도 점수 : '매우편리' 4점부터 '매우불편' 1점까지의 4점 척도로 계산된 값

<표 27>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응답결과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서로 크게 다른 점은 없었으며, 이용경험이 많은 편의시설은 건물의 진입 경사로이며 응답자의 84.7%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시설보다 경사로가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76.0%), 출입문(70.9%), 장애인용 주차장(57.0%) 등의 편의시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용 경험이 적은 편의시설은 높이낮춘 공중전화·우체통(22.7%), 높이낮춘 매표소·접수대(24.0%), 극장내 장애인용 관람석(25.3%) 등으로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해본 편의시설의 편의도 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의 이용이 장애인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며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중간 수준 보다 조금 나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의시설

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주차장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단과 휠체어 리프트, 극장 내 장애인용 관람석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편의시설 종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물의 진입경사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용 주차장 등이다. 이들 시설은 <표 27>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공급이 가장 많이 되어있고 편의성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요구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표 26>의 결과에서 보여지 듯 '장애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추측된다.

<표 28>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편의시설(지체 및 뇌병변)

구분	건물의 진입경사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용 주차장	대중교통 장애인지정석
전체	59.2%	37.8%	27.9%	24.5%	24.1%
지체장애	59.0%	38.2%	27.3%	27.8%	22.8%
뇌병변	60.4%	35.6%	29.8%	14.2%	28.4%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전체 결과임, 사례수 (N=1,023)

4.2.2 시각장애인

<표 29>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편의시설은 횡단보도 및 육교(지하도)등의 유도블록과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편의시설의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ATM(현금자동입출기)의 경우 16.7%로 이용률도 낮았으며, 편의도 점수가 1.8점으로 매우 낮아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ATM(현금자동입출기)의 경우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속하지 않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세부 편의시설 이용률 및 편의성 평가(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이용률	필요성	편의도 점수
횡단보도, 육교(지하도)등의 유도블록	73.6	86.5	2.7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70.8	91.7	2.8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36.8	82.1	2.9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21.5	65.4	3.0
계단	52.8	62.8	2.5
장애인용엘리베이터	59.0	81.4	3.2
장애인용 대변기	27.8	44.2	3.1
장애인용 소변기	20.8	40.4	3.0
장애인용 세면대	18.8	42.3	3.0
장애인용 개찰구	15.3	59.0	2.7
시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10.4	77.6	2.7
대중교통 수단내 장애인 지정석	24.3	75.0	2.7
관람장(극장)내 장애인용 관람석	10.4	60.9	2.4
건물 또는 현위치 안내표시	17.4	77.6	2.5
자동판매기	21.5	64.7	2.3
ATM(현금자동입출기)	16.7	64.1	1.8

* 중복응답 처리 결과임
 편의도 점수 : '매우편리' 4점부터 '매우불편' 1점까지의 4점 척도로 계산된 값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편의

시설에 대한 응답한 결과는 <표 30>과 같이, 현재 이용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횡단보도의 유도블록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향신호기 또는 유도블록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편의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이며, 현재 어느 정도 공급은 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표 26>의 결과에서 보여지 듯 ‘장애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추측된다.

한편 이용률도 낮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도 속하지 않는 ATM(현금자동입출기)에 대한 개선욕구가 20.1%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널리 보급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30>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편의시설(시각장애인)

구 분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유도블록	유도신호 장치	ATM	대중교통 장애인지정석
응답률(%)	50.5	48.0	37.3	20.1	18.1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전체 결과임, 사례수 (N=)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장애인 중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 사회활동 빈도 및 활동장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은 주택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족 등의 도움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한 상태로 현재의 주거 환경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조 시행이 가장 높은 부분은 화장실 및 욕실과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장애물(단차 등) 제거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조의 필요성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내부의 단차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없어도 불필요한 설치물로서 주택설계 처음 단계부터 제거되어야 할 요소이며, 보조 손잡이의 경우도 화장실과 욕실의 기능을 위한 긍정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가 반영된 주거환경 설치 및 개조 매뉴얼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활동의 경우 주로 타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지체장애인의 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의 생활환경이 지체장애인에게 편중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여러 사회 활동 중 문화 및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분야의 물리적 환경 장애를 최소화하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편리한 환경조성을

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하다.

넷째, 세부 편의시설에 대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구체적인규정이 없어 시행되고 있지 않는 ATM과 현재 가장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관련된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법적 기준만을 충족하는 시설로는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법적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급에만 치우쳐 설치되어 온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양적인 설치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등 공급이 증가되었으나, 한국 장애인의 인체 치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외국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 전체적인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 만족도 및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한국 장애인의 보편적인 인체 치수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한 국내 실정에 맞는 질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은 시설 설계시 계단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설계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누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장애물을 제거하는 설계 혹은 차별화하지 않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경혜 외,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2.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3. 윤원중, 시각장애인의 주거공간 내 동작·행위·행동 특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2004
4. 임희경, 공간복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대적인 필요성, 산경연구, 2002.12, p293-310
5. 장윤정,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요구조사, 연세대학교, 1999
6. 황은경, Universal Design 설계기법 고찰, 건설기술정보, 1996.10
7. 김기정, 편의시설 다시보기, 파라다이스복지재단·장애인편의시설추진단, 1998
8. 조성모 외 3인,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학문사, 1997
9.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품 및 환경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산업자원부, 1998
10. 일본건축학회, 건축설계자료집성(인간), 에이엔씨, 2005
11.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